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9월)

*** 서면 제출일 : 2020. 9. 17.(목)**
*** 총원 15명 중 8명 참여**
*** 참여 위원 : 강부원, 김요수, 김태진, 류한호, 이정권, 임철원, 최선희, 최영태(8명)**
***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2020년 9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보도

□ **김요수 위원**

-news는 '동서남북'이라는 말을 뜻한다는 말도 있는데, 광주MBC의 뉴스 다양성이 늘 아쉽습니다.

-서울 프로그램에서 '중앙 정치' 이야기를 한 뒤에, 광주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광주 프로그램인데 다시 또 '중앙 정치'를 분석해 주었어요. 광주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은 광주를 분석하면 더 좋겠어요.

□ **류한호 위원**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8. 26.)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한계에 관한 보도는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상당히 기여한 보도로 보임. 기사는 광주광역시 정보공개 내용이 너무 부족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을 보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보도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서 지역별로 상세히 제시함. 이어서 광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확진자 인권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양해해달라는 광주시 당국자의 견해와 당부를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상당히 풀어줌. 다만 시민들의 불만은 기사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시민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된만큼 그 후에 시 당국의 공개기준 변화는 없었는지, 다른 지역의 공개방식은 변했는지 등을 후속보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음

-<김낙곤의 시사본색>(9. 13.)

1부에서 8월 하순 이후 광주에서 확산된 코로나19 관련 광주광역시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 배경과 광주시가 전개하고 있는 민생대책에 관하여 이용섭 시장을 초청하여 대담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선택이었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지역 방역 책임을 맡고있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그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함으로써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됨. 대담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원대책에 대하여 좀더 심층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견인하는 후속보도가 있으면 좋을 것임

2부에서 의사집단휴진과 파업, 의대생 동맹휴학을 둘러싼 광주전남의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은 시의적절했으며, 출연진도 취재기자와 의료진, 의료정책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 해당 사안을 심층적이고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됨.

□ **최영태 위원장**

-이용섭 시장은 9월 10일 광주 전남 통합론을 제안했습니다. MBC는 10일 이 시장의 통합 제안을 간단하게 보도합니다. 11일에는 전라남도가 대변인을 통해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태도를 밝힙니다. MBC는 11일 전남의 이런 입장을 또 간단하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12일, 13일, 14일에는 통합에 관한 보도가 일체 없었습니다. 15일에는 다시 통합 관련 보도를 합니다. 이 시장의 통합 제안의 의도 배경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6일에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 움직임, 부산·경남·울산 등 동남권의 통합 움직임, 대전과 세종시의 통합 움직임을 소개합니다. 갈수록 통합에 대한 보도가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것은 12(토), 13(일), 14일(월) 뉴스입니다. 3일 동안에는 통합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토, 일요일이 들어 있는 기간이고, 이용섭 시장이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통합을 언급했는지 진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논의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3일 중 하루쯤은 통합 제안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반응을 점검해볼 만 시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국회의원, 시도 공무원, 시민단체, 시·도민 등의 반응을 탐색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뉴스가 갖는 신속성을 고려할 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 **이정권 위원**

-<김낙곤의 시사본색>

지방정치, 지역경제, 문화현상, 교육이슈, 젠더이슈 등 지역 밀착형 뉴스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 지역을 대변해 중앙정치에 여론을 전달하는 목소리 역할을 하는 시사방송 프로그램이다.

논쟁이 되고있는 사회적 이슈의 해법을 모색하며 토론하여 지역민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지역 주민들은 무엇이 지역 이익에 더 유리할지 실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처럼 시사해온 프로그램 취지대로 프로그램 전개해도 무방하고, 지역적 이슈 현안 문제 전개 시 그 지역 전문가 및 주민들의 공개 토론회 방향도 심사숙고 필요성은 보인다. 지역적인 문제는 해당 거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진행 요청 시 더욱더 다양한 부분 시청자들도 공감할 수 있다.

□ **최선희 위원**

-<김낙곤의 시사본색> 김종인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편

모처럼 제1야당의 총수가 민주의 성역이라고 하는 광주를 방문하여 5.18묘역도 참배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다. 광주MBC의 방문과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현하는 일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화두를 가지고 점층적으로 좁혀가며 대담을 나누는 광경은 앞으로의 미래통합당의 무한한 변신이 예견됐다. 5.18묘역 방문은 5.18 왜곡에서 당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는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행보였다.

광주 방송사에서 보수정당 비대위원장이 출현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코로나19의 위기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따르도록 함이 옳다는 판단은 지극히 정상적인 답변이었다.

8.15 광복절 행사를 일개 의원들의 개개인의 행동까지 제한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을 버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자리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김낙곤 진행자의 질문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일문일답이 명쾌하게 전개되어 알기 쉽고 이해가 잘 되는 각도로 콘티가 제작된 것 같아 참 다행이었다.

편성 프로그램

□ **강부원 위원**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박혜림입니다>와 관련하여 제가 점심 때 산책하면서 많이 듣는 채널입니다. 일단 선곡이 참신하고 지역 뮤지션들을 발굴, 소개해 주는 측면은 굉장히 맘에 듭니다. 다만,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너무 시각적 측면을 강조하는, 보이는 라디오를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많아 라디오만 청취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측면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디제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청취자 입장도 고려해 주는 표현이 주된 표현이면 좋겠습니다.

-9. 9.자 <오매 전라도> 슬기로운 취미생활의 경우, 주된 시청자 중의 하나인 아저씨들이 주체가 되어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저씨만의 시각이 좀 더 강조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체가 아저씨로 바뀌었을 뿐, 리포터나 연예인, 젊은 여성 등이 주체가 되는 것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주체로 나서면 뭐가 달라지는지, 덜아재는 더아재와 뭐가 어떻게 다른지 등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편, 짧은 꼭지임에도 다육과 판화를 2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취미를 해봤다는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 취미를 중점적으로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더 좋지 않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김요수 위원**

-신현희와 자이로가 진행하는 8월 28일 <난장>

오, 나만 알고 지내고 싶은 이날치 밴드가 나왔어요. 국악이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밴드죠. 조선의 힙합, 조선의 랩이 세계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현대에 살면서 조선의 흥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인터뷰할 때 이날치 밴드가 뮤직비디오나 앰비규어스란 말을 하는데, 자료 화면이 짜잔~하고 나왔으면 이해하기가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웠어요. 가비앤제이 인터뷰할 때 '찐'이란 말이 나오자, '찐 찐 찐이야'는 노래 대목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인터뷰 양념이 섞이면 좋겠어요. 끝 무렵에 '재국의 아이들', 새롭고 미래가

보이는 뮤지션을, 토크(이야기)를 통해 만나게 해주는 대목은 흥미로워요, 끝내면서 그들의 노래를 조금 들려주는 센스도 좋구요.

-신현희와 자이로가 진행하는 9월 11일 <난장>

한국의 펑크 선두이자 대표인 크라잉넛이 전세를 냈어요. 크라잉넛의 공연은 프로 냄새가 물씬 났답니다. 카메라는 가만 멈춰있는데, TV의 네모 안에서 그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냈어요. 흥의 땀이 TV 밖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무대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관객도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방송에서는 보기 힘든 김인수 님, 현란한 아코디언과 건반을 치는 모습을 봐서 좋았어요. 김인수 님의 울부짖음 같은 외침과 노래(?)도 들을 수 있었지요. 공연장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크라잉넛이 벌써 25년이나 되었다니 놀랍죠. 인터뷰에서는 그들의 시작과 고난을 이야기로 풀어줬는데, 힘들었던 이야기도 흥겹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신나는 연주가 코로나를 몰아내는 듯했지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떠나야 이런 공연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광주 문화를 소개해 주던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광주문화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오매 전라도>

'오메'라고 썼던 말을 '오매'로 바꿔버린 '오매 전라도', 17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온 9월 9일 '오매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도 다섯 가지 매력을 뜻한다며 '오매'를 쓰기도 했지만)

스튜디오에 쉽게 보기 힘든 그림을 걸어서 보여준 일, 어, 이렇게 전시를 하니 참 좋고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볍게라도 살짝 그림 속 이야기를 했어도 좋았을 듯해요. 첫 꼭지로 전일문화센터 마스크 만들기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요새는 곳곳에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마스크 만들기 소개였다면 더 디테일한 소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전일문화센터 소개 포인트가 대표 인터뷰? 마스크 제작? 문화센터 소개? 주제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또 이 꼭지의 주제가 '집콕 프로젝트'였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집에서 멋지게 보내시는 분들을 찾았으면 더 좋았겠어요. 집콕 프로젝트=마스크 만들기, 이런 배치가 좀 아쉬웠어요.

장성에 사과뿐 아니라 포도도 있어요. 아버지를 이어 포도 농사에 도전하는 젊은이, 농사에 다가간 과정과 현재의 모습, 열정과 도전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와, 농사의 일상과 여가의 일상, 농사의 배움과 삶의 배움, 이런 연결이 아쉬웠어요. 부러움, 아니면 대견함, 아니면 뿌듯함이 느껴지는 꼭지였으면 어떨까, 고생 엄청하면서 촬영했을 텐데, 안방에서 편히 보면서 말이 많지요? 죄송해요.

□ 임철원 위원

<1억 년 전의 유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9/3, 9/10 방영>

광주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우리 지역의 상징이자 자랑인 무등산이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지 2년이 되었다. 하지만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인지도가 높아져 전국에서 탐방객들이 밀려들고 있는데 비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유래와 의미, 가치 등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가 안 된 탓인지 인지도는 낮은 편인 거 같다.

무등산권역 세계지질공원에 위치한 입석대, 서석대, 광석대 등 주상절리는 다른 곳의 경

우 대부분 바닷가나 강가에 위치한데 비해 내륙 그것도 대도시에 위치한 특별한 경우이고, 학술적으로나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데도 아직은 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MBC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정 2주년 특집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질공원의 의미와 가치, 체계적 홍보방안, 보존과 활용, 해외 여러 나라의 개발 사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 보존과 개발의 대립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과 대안 제시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의 일상의 일부이고 가까이 품고 있지만 무심하게 대하고 있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바탕 위에서 보존을 제대로 하면서 대중성과 스토리가 있는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생태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론화와 중장기 로드맵을 체계화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최선희 위원**

-라디오칼럼(2020. 9. 11.) '격려와 용기'- 전남대학교 화학공학과 한은미 교수

코로나19의 위기관리 흐름을 통해 시대상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호칭리더십 길찾기 과정>을 통해서 격려가 주는 효과가 얼마나 유력한 힘이 되겠는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하자는 칼럼이었다. 발음, 목소리, 스토리 모두가 적정한 내용이었지만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하는 욕심을 바래본다.

기타

□ **김태진 위원**

-홈페이지 문화행사 카테고리

광주MBC 홈페이지의 메인 카테고리 중 문화행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문화행사 카테고리 내에 총 다섯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연, 행사' 카테고리에 최근 몇 달간 네 건의 행사가 올라온 것을 제외하면 다른 게시판에는 글들이 올라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더욱 문화행사가 행해지기 어려운 상황의 영향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문화행사 카테고리에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카테고리나 하부 카테고리를 통합을 하거나 몇몇 카테고리들을 없애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성을 위한 카테고리를 두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자칫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페이지 디지털콘텐츠 카테고리

디지털콘텐츠 카테고리에 현재 <문화콘서트 난장>에 대한 콘텐츠들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성장에 발맞추어 디지털콘텐츠 카테고리에 유튜브 콘텐츠들도 함께 업로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방송된 콘텐츠들을 재가공해서 유튜브 콘텐츠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갈수록 유튜브용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홈페이지에서도 유튜브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홈페이지 방문객들에게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주리라 생각합니다.